

2011 경기문화바우처 기획사업  
아카이브 전시

가가호호  
문화교감

낮달  
문화소풍

활생  
문화공명

## 2011 경기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2011 경기문화바우처 기획사업은 가난, 예술, 소외, 사람을 다루는 우리 사회의 태도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문화카드를 발급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문화바우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카드 발급 및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현실에 주목하고, 문화바우처의 추상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 문화바우처사업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이 연간 5만원 한도 내에서 문화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아 개인이 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전시관람 및 도서, 음반구입 등을 지원한다.

## 2011 경기문화바우처 기획사업

### 아카이브 전시

#### 4 인사말

#### 6 전시기획

#### 9 가가호호(家家好好) 문화교감

찾아가는 고양이들

안녕하세요 대부도 사진클럽입니다

재능기부 재가방문

크크 오케스트라

#### 29 낮달 문화소풍

#### 35 학생(活生) 문화공명

도시 스킨 케어링 / 아트포럼 리 - 부천

넌 나 뭐줄래? /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 안성

예술수다로 톨A봄 / 대안공간 눈 & 이웃 EWUT - 수원

집배원의 손편지 / 스톤앤위터 & 소셜아트컴퍼니 - 안양

수다.ZIP- 다문화 활동가들의 이야기 /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 안산

치유와 나눔의 숲, 어저구니 숲학교 / 문화살롱 공 - 포천

#### 60 Who. 후 이야기

가가호호 문화교감, 낫달 문화소풍,  
활생 문화공명 아카이브 전을 열며

2011년은 경기문화재단이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을 이관 받아 실행한 첫해였습니다. 이 사업의 주관처가 복지관련 단체여야하는가, 아니면 문화관련 단체여야하는가를 두고 설왕설래하던 때가 작년 이맘때였는데 벌써 한해가 훌쩍 갔습니다. 문화와 복지 영역이 만나 열린 새로운 영역이었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 주관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을 보다 높게 담보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초점이었습니다. 창발적인 기획역량을 중시하여 문화영역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이 본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을 이관 받으며, 창발적인 기획력은 예술가 집단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예술가 집단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사업의 취지를 전하고 사업의 구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가호호' 문화교감, '낫달' 문화소풍, '활생' 문화공명 3대 사업이 세팅되었습니다.

'가가호호' 문화교감은 찾아가는 문화복지 서비스로 가가호호(家家好好)?! 하신지를 예술가들이 집집마다 찾아 여쭙고 한때나마 미소 지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홀로 사시는 분, 또는 몸이 불편하신 분의 집을 방문하여 예술적 재능을 나누겠다 하시는 기부자를 모집하는 것도 녹록치 않은 과정이었지만, 누추한 내 집과 내 몸,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낯선 예술가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일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가호호'의 현장이자 매개 공간인 '집'은 독한 가난의 상징이자 소외 그 자체라는 사실을 체득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공간으로서의 집 외에 그 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이들이 서로를 기대며 모여 사는 생활거주 시설을 방문하는 방식이 병행되었습니다. 기획 초기 예술적 리서치와 맞춤형 문화복지 서비스, 그리고 이를 매개로 한 '예술과 삶에 대한 교감'과 보다 나은 복지대안을 찾고자 했던 계획은 우리 모두에게 인내심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대화하기를 거부한 자폐 아이를 만나러 가는 청년 작가들이나 장애로 인해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인 와상 장애인과 좋아하는 음악과 듣고 싶은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만돌린 연주자 모두 한결같이 사람을 만나고 알아가는 즐거움이 더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낫달' 문화소풍은 화창한 주말에 모셔오는 문화복지 서비스로 보고 싶은 전시와 공연을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의욕을 더 내어 간만의 나들이로 외로운 분들이 서로 사귀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레크레이션과 연극놀이도 곁들이고자 하였으나 젊은 분들과 어린이들은 매우 즐거워하였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이 또한 상당한 체력이 소모되는 일이라 막상 공연을 보실 시간에는 조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활생(活生)' 문화공명은 경기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사회공헌형 3D 종사자를 위한 헌사 프로젝트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곳곳에서 굶은 일을 마다않고 행하시는 분들을 위해 예술가 집단이 올리는 오마주 프로젝트입니다. 경기 지역 6개 대안공간의 작가들이 내일같이 여기며 나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공간을 꾸리랴 여러 가지 전시와 교육 그리고 아웃리치 사업을 하라 심신이 지친 작가분이 이 프로젝트를 하며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다시 활력을 찾는 것을 보며 상호 공명(共鳴)의 힘을 엿보았습니다.

다수의 예술가들이 연봉 2천만원만 보장돼도 좋겠다며 바람을 얘기하는 시대에 문화바우처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셔서 흔쾌히 함께 애써주신 예술가분들께 그리고 문화바우처 사업의 파트너로서 낮에는 예술가들을 방문지로 안내해주고 밤에는 뒷일을 성심성의껏 해주신 분들께, 몸이 축남에도 불구하고 주말도 없이 수시로 밤일을 하며 묵심있게 이 사업을 맡아 한 분들께, 또한 이 사업을 돕고자 나서주신 복지관련 예술관련 시설 운영자 여러분과 이 사업이 잘 되길 바라며 관심과 애정을 갖고 믿고 지켜봐 주신 후원기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과 저희와 함께한 예술가들의 마음을 받아 문을 열어주시어 환대해주시고 기꺼이 나들이 길에 동행해주시고 예술 프로젝트에도 한층으로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2011년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의 매듭짓치를 아카이브 전시로 펼치는데 뒷심이 되어주신 전시기획자와 코디네이터, 디자이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12년 새해 모두들 얼굴에 미소 퍼지는 날들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센터  
두 손 모음

**전시의 감각** 2011년 경기문화바우처 기획사업 아카이브전에 대한 전시기획의 변(辯)  
김월식 작가

**낭만적 사업** 2011년 경기문화재단의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에 대하여 처음 이야기를 들었던 때를 기억한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동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견과 논의가 있었던 것을 들었다. 그러한 논의의 끝에서 '가가호호' 문화교감, '낮달' 문화소풍, '활생' 문화공명이라는 다소 결연하고도 낭만적인 이름의 사업들이 나와 같은 예술가들과 만나게 된 것이다. 처음 예술가와 예술가 집단이 문화바우처 사업의 수행 주체가 되었을 때 이 '등보잡'의 사업명들이 갖고 있는 숨은 뜻에 대하여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다. 몇 번의 회의와 의견수렴 자리를 마련해도, 예술가들의 행간 읽기와 상상력들은 처음 기획의도와 달리 성큼 성큼 본질의 자리를 벗어나 제 갈 길로 흩어 졌다. 간섭과 믿음, 의심과 후회 같은 것들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고개를 내밀었을 테고 그 고단한 과정 끝에 사업은 마무리 된 듯하다. 이제 그 고단한 과정을 어떻게 드러내고 나누며, 격려하고, 비판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역할** 아카이브 전시는 기록과 정보 전달에 방점을 두는 전시 방식이다. 이번 아카이브 전시의 기획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소 방만한 이 많은 사업 내용을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잘 전달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었다. 또한 사업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획의 관점을 최대한 배제 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 편견을 포함하더라도 전시 공학적 측면의 기획의 관점을 드러낼 것인가? 에 대한 판단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저런 고민의 무게는 결국 역할의 무게이다. 작가 혹은 전시기획자의 역할은 창작자 혹은 생산자의 모습과 닮아 있다. 무게가 무거운 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이 무거움은 결국 비평의 무게이기도 하고 책임져야 할 무게이기도 하다.

**우리 지금 만나** 경기문화바우처의 기획사업은 가가호호, 낮달, 활생의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총 11종류의 세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예술가와 활동가들의 수도 많고 그 역할과 범위도 많다. 그들이 보내준 자료를 하나하나 열람하고 텍스트를 읽어 본다. 그런데 그 자료들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는 반면 머리 속에는 작가의 엉뚱한 상상기제가 발동되면서 오히려 이면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하는 것은 왜 일까? 모름지기 예술가란 인간들은 정리되고 다듬어진 정보와 자료들이 갖고 있는 단정함보다는, 과정에서의 흐트러짐과 날 것 같은 감각을 선호하는 편이다.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궁금을 향해 만남을 요청한다. "만남시다", "만날까요?" 면대면을 하고 앉아서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주고 받는 말들은 역시 훨씬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비로소 단정한 자료와 정보에 부족한 감각들이 채워진다. 때로는 예술가의 작품보다 예술가의 고단한 삶에서 예술가가 신화화 되는 경우를 본다. 고흐가 귀를 자르고 이중섭이 담배종이에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이 고흐의 해바라기를 꿈틀거리는 정열로

착각하게 하고 기운 생동한 황소가 담배종이에서 뿔쳐나올 것 같다는 판타지를 만든다. 작가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겪은 고단한 에피소드는 작가들의 진정성과 날 것들의 감각과 만나서 변주를 시작한다. 그것은 모니터를 흐르는 영상도 아니고 예쁘게 웃고 있는 단체사진도 아니며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텍스트도 아니다.

그것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작가들의 흔들리는 마음이고, 섬세한 자기표현이며, 불편한 심정이기도 하고 부끄럽게 몰래 흘리는 감동의 눈물이기도 하다. 이런 고백의 언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결국 아카이브 전시에 전문가를 자처했던 기획자는 이 감각이 조응하는 고백의 언어들을 전시 언어로 번역한다. 전시의 시작이다.

전시는 새로운 학제로, 모든 매체와 소통의 힘, 그리고 집단적인 노력과 영향의 정점으로서 발전해 왔다.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혼성 수단들은 놀랍게도 복잡하다. 그야말로 가시적인 인쇄나 소리로서의 언어, 상징과 회화, 사진으로서의 그림, 조각적 매체, 재료와 표면, 색, 빛, (방문자들을 포함한 디스플레이의) 움직임, 영상, 다이어그램 등등이 뒤섞여 있다. 모든 조형적이고 심리적인 수단들이 총체적으로 적용되면 전시는 하나의 강화된 새로운 언어가 된다.  
- 헤르베르트 바이어

**전시** 경기문화바우처의 기획사업 아카이브 전시는 각 사업과 프로젝트들이 수행과정에서의 다양한 함의를 포함한다. 그것은 예술가들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일 수도 있고 예술가들의 이야기 일 수도 있다. 때문에 이 과정의 이야기들을 담은 그릇으로 이번 전시가 기획된다. 문화바우처사업의 과정을 나열하는 방식은 오히려 문화바우처 사업이 갖고 있는 선의를 단선화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문화바우처 기획사업과 프로젝트들이 다양한 각도의 읽기가 가능한 방식으로 연출되는데, 그것은 그간의 과정을 드러내고 공유하는 방식에 대한 총체적 고민이다. 기록적 아카이브를 넘어서 사업 주체자들이 과정에서 겪은 진정성의 방향들까지 감각적으로 조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현과 재연의 요소를 포함시켰다. 때로는 열람과 감상의 접점을 최대한 열어둔 상징이 전시공간을 점유하기도 하고, 시각적 관람보다는 공감적이고 입체적으로 전시를 읽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였다. 무엇보다도 미시적으로 짧은 거리에서 밀착된 참여자들의 정서적 스킨십에 대한 감도가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가까운 거리를 두고 사업의 굴곡을 지켜보았던 한 예술가의 입장에서 이 전시가 문화바우처 사업의 내일을 다시 꿈꾸게 하는 애정 어린 비평을 포함하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

가가호호(家家好好) 문화교감은 예술가들이 가정집과 생활시설 및 사회복지기관으로 찾아가서 공연, 사진촬영, 체험 등의 문화예술 활동을 기부하는 나눔 활동이다. '가가호호(家家好好)'의 뜻은 그 의미 그대로 '집집마다' 문화로 교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가가호호 문화교감은 총 4개의 프로젝트로 나뉘며 집집마다 문화꽃과 예술꽃이 피어나기를 꿈꿨다.

'찾아가는 고양이들'의 청년 예술가들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집으로 찾아가고 '안녕하세요 대부도 사진클럽입니다(대부도 가가호호)'의 사진작가와 지역주민들은 대부도의 독거노인들의 집으로 찾아갔다. '재능기부 재가방문'의 예술재능기부자들이 생활시설과 가정집으로 찾아가고 '크크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악기를 집으로 가져가서 마음껏 연습할 수 있었다.

## 가가호호 문화교감

태호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고 싶다.

김인경

민정이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덕분에 나도 성장하는 것 같다.

가르침은 역시 생의 곳곳에 있는 것 같다.

허영운

‘찾아가는 고양이들’의 결과물이 아닌 과정들은 어떻게 기록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공유될 수 있을까?

고재필

### 찾아가는 고양이들

‘찾아가는 고양이들’은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에서 활동하는 10명의 청년 예술가들이 참여하였다. 에이블 아트센터의 ‘에이블 아트’는 장애인이나 무능력(disable)하다고 일컬어지는 것에 반해 가능성(able)의 예술을 앞장서서 부르는 것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찾아가는 고양이들’이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청년 작가들은 스스로를 ‘찾아가는 고양이’라 불렀고, 집으로 찾아가서 만나는 아이들을 ‘작은 고양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청년 작가들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집에 방문하여 각 분야별로 애니메이션, 영상, 그림 그리기, 만들기 등의 다양한 시각예술활동과 나들이를 했다.

청년 작가들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집에 방문하면서 부모님의 태도, 아이와의 관계, 장애에 대한 이해, 소통, 재료 준비 등의 크고 작은 부분들을 신경써야했다. 또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예술 교육, 예술 치료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며 아이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존중하며 교감하고자 했다. 참여한 모든 작가들이 그 과정들을 ‘고양이 발자국’이라는 일지로 남겨 두었다.

찾아가는 고양이들 프로젝트가 끝나고 ‘찾아가는 고양이 활동보고전’이 대안공간 눈에서 열렸다. 그동안 아이들이 작업한 작품들, 활동가와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 등이 전시 되었다. 아이들의 작품은 자기만의 여행 가방 안에 전시되었다. 여행 가방은 예술가들이 언제 어디서나 아이들과 작업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일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예술 세계를 존중하고 소개하고 싶은 작은 부스일 것이다.

### 찾아가는 고양이들

기간

2011. 7 - 2011. 12

디렉터

조득수 에이블 아트센터

참여 작가

고재필, 박정현, 허영운, 허만재, 허영수, 권소희, 윤지혜, 김인경, 김성은, 구영신

참여자 명단

정민철, 고지은, 신민정, 조민서, 김동현, 유은미, 이찬영, 이세미, 이세연, 이윤주, 김태호, 마유선, 정다혜, 김경민, 유은빈, 양윤선

코디네이터

장혜윤

### 10월 21일 고양이 발자국

윤지혜

집 안을 둘러보니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꽤 많았다. 윤주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방에서 잘 안 나온다고 하신다. 밥도 방으로 갖다달라고 할 때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방에서 주로 뭘 하냐고 물었더니, 대부분 컴퓨터로 동영상이나 만화를 본단다. 특히 돌리! 이 시대에 돌리를 좋아한다니. 좋아! 다음시간엔 돌리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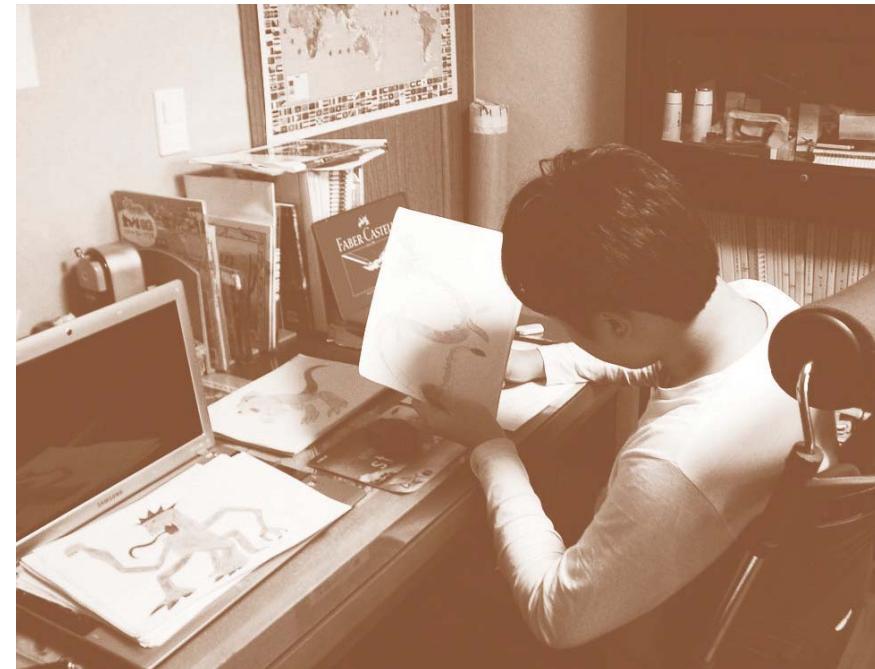
“쌤이 다음 주에도 놀러올 건데,

그때 같이 돌리 볼까?”

윤주: (말없이 살짝 끄덕끄덕)

그나마 마지막에 한마디 나눌 수 있었다. 다음 시간엔 더 많이 친해지길 바라며!

1



### 10월 25일 고양이 발자국

허만재

연필로 그린 공룡에 색연필로 색칠을 하는 민서. 한 가지 색깔로만 칠하지 말고 다른 색도 부분적으로 칠해보라니까 회색으로 칠한 공룡의 몸에 파란색으로 덧칠을 하기 시작한다. 그림 그리는데 민서의 입에서 ‘녹색전차 해모수’도 언급이 되어졌다. 민서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자신의 그림에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하면 상대방에게 호기심을 보이며 대답을 곧 잘하는 듯하다.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려고 일어서려다 민서가 라이트박스에서 그렸다는 그림들을 스캔해서 에팩으로 편집을 해 보고 싶은 생각에 할머니께 말씀드리고 집으로 가져왔다. 과연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날지 내심 기대가 된다.

1

공룡 그리기를 좋아하는 공룡마니아 작은 고양이

**10월 29일 고양이 발자국  
하명수**

“이 방법은 어때? 그냥 색연필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좋아?”  
“색연필이요.”  
“왜 물감은 싫어?”  
“물을 것 같아서...”

카페에서 하는 미술수업이라 물감이 카페 시설에  
문을 걱정한 것이다. 동현이가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생각해보면 오늘 수업에 늦어 미리 전화한  
것도 밥을 먹었나 물어보는 것도 준비된 재료가  
없느냐 다그치지 않는 것도 다 동현이의 배려였다.

다음 시간 약속 장소를 동현이가 가고 싶다는  
조세박물관 근처의 '안국역'으로 정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나는 동현이의 선생님이 아니라  
누나가 되어주기로 했다. 눈치가 이렇게 늦는데  
어떻게 선생님인가 내가?

**10월 29일 고양이 발자국  
박정현**

지은이가 한동안 만들다가 잠시 멍해지더니  
가위와 테이프를 가져온다. 주변에 있는  
재료들(색종이를 포장했던 비닐, 스탬프와  
뚝깎이로 모양낸 조각들로 꾸며졌던 스케치북,  
굴러다니던 안내장)을 돌돌 말아 붙이고 오리고  
색칠하자 망원경이 만들어진다. 재미있게도  
굴러다니던 비닐에 예쁜 연두색을 칠해 렌즈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망원경을 통해 방안을 멀리  
그리고 가까이 둘러보며 좋아한다.

오늘 알게 된 사실 하나. 지은이는 재료에  
연연하지 않고 주변의 것들로 관심 가는 사물의  
특징을 잘 잡아내어 만든다.

2  
카페에서 그림 그리는  
작은 고양이

3  
작은 고양이가 만든  
핸드메이드 망원경  
'뭐가 보일까요?'

**11월 3일 고양이 발자국  
고재필**

민철이와 무엇인가를 함께 처음 만들어 낸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는 그 과정에서 둘의 관계에 작은  
발전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내가  
제안하려는 것과 그 과정에서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사를 전달했고 민철이는  
잘 따라와 주었다. 다만 이제 5회차가 지나고  
나면 서로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조화롭게  
굴러가는,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리를  
잡아나 가면 좋겠다.

한 가지 더, 내가 짐을 챙겨서 나갈 준비를  
하면서 이리저리한 말을 걸자 민철이는 다시 예의  
그, '이제 어서 가세요.' 라는 말을 했다. 나는  
약간 단호하게 '민철아, 이럴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했고 민철이는 그럼? 이라는  
표정으로 약간 멍하게 쳐다보았다. '다음에 또  
봐요, 라고 해야지.' 민철이는 스스로없이 '다음에  
또 봐요!' 라고 인사했다.

**11월 7일 고양이 발자국  
구영신**

은미를 못 본지 꽤 되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은미를  
보고 담임선생님께서 한동안 같이 지내기로 하셨다.  
고양이 활동이 지향하는 것이 아이들을 장애를 가진  
특정한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각자를 있는 그대로  
고유한 존재로 보는 것인데 반대로 이 방향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아이의 감정이나, 상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잊게 되는 것 같다.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을 어떤 식으로든 줄 수  
있는 것. 고양이 활동이 이런 부분에서도 발전되고  
잘 정립되었으면 좋겠다.

4  
찾아가는 고양이이와  
작은 고양이의 즐거운 한 때





11월 15일 고양이 발자국

김성은

말없이 그림에 집중했다. 경민이가 오늘 따라 수없이 작품을 쏟아냈다. 꽤 많은 그림을 그렸다. 주제는 대부분 동물이었다. 경민이는 우선 종이 아래에 흰색으로 큰 선을 하나 긋고 밑에 종으로 선 4개를 그린 후 그림을 시작한다. 이게 원칙이다. 그리고 채색이 먼저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동물을 본다. 드로잉 후에 채색이 역순이다.

우리의 대화는 대부분 “아빠 오면 삼겹살 먹을거예요” 와 “힘다수쓰다헤에엠 후다하 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번 활동에서 난 “힘다수쓰다헤에엠 후다하 후.....” 동영상 하나 건졌다. (야훗!) 경민이 어머니와 잠시 얘기를 나누는데, 어머니께서 경민이가 이 시간을 가장 기다린다고 하신다.

11월 22일 고양이 발자국

허영운

민정리와 기념사진을 찍고 얼른 크리스마스카드 만들기에 돌입했다. 민정리는 가져온 재료들을 건네주자 망설임 없이 마구 풀칠하고 자르고 붙인다. 민정리의 이런 점은 정말 장점이다. 표현하는 능력, 실천하는 행동력이 뛰어난 것은. 하지만 가끔 원하지 않는 것은 금방 흥미가 떨어지는 것이 아쉽다.

이런 점을 조득수 디렉터님과 이야기 했더니 아이가 더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불편한 기다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버텨주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맞는 말이었다. 장애아동이든 누구든, 사람들은 늘 자신이 불편한 어떤 상황에 대해 견디지 못하고 피하거나 그만뒀버린다.

내게도 고쳐야할 부분인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리고 민정리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덕분에 나도 성장하는 것 같다. 가르침은 역시 생의 곳곳에 있는 것 같다.

5  
작은 고양이가  
그리는 중

12월 2일 고양이 발자국

권소희

카메라를 두 개 가져왔는데 사진 찍는 것은 크게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구경시켜달라고 부탁하자 왠지 기분이 좋아져서 신나게 날 데리고 다닌다. 1층에서 4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며 은미는 여태까지 만남 중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해줬다. 어떤 선생님이 잘 해주는지, 어떤 애가 교회에 같이 다니는지, 누가 반장이고 누가 부반장인지, 은미는 어느 반에서 뭘 배우는지, 누가 싫은지. 다음에 은미가 다니는 금곡교회에 오면 그때도 이렇게 구경시켜주겠다고, 거기는 3층으로 되어있는데, 엄마랑 할머니랑 큰엄마랑 다 있다고.

12월 3일 고양이 발자국

김인경

다양한 색을 쓸 수 있다고 설명해주었더니 그제야 파란색과 초록색을 사용했다. 붓질이 낫설어서인지 일정한 간격과 길이의 붓터치를 사용해서 채색하였다. 여러 동물의 이름을 나열해놓은 글을 보여드렸더니 어머니께서 태호가 동물을 아주 좋아한다고 말씀해주셨다. 서울대공원에 가서 태호와 함께 동물을 구경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태호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고 싶다.

6  
작은 고양이의  
코스프레

7  
작은 고양이들의  
한바탕 시장놀이





대부도는 섬이다. 내가 만난 사람들의 집 또한 섬이다. 섬 속의 섬!  
박준식 사진작가

### 안녕하세요

#### 대부도 사진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부도 사진클럽입니다’는 박준식 사진작가와 경기창작센터에 입주해있는 청년작가들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대부도 사진클럽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작가들이 안산 대부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사진 촬영 및 옛사진 복원, 그림 문패, 방풍작업 등을 하는 ‘대부도 가가호호’이다.

박준식 사진작가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관할 면사무소와 주민센터로부터 문화바우처 대상자에 속하는 기초수급대상자와 법정차상위계층의 88가구의 주소를 받았다. 그렇게 확보한 주소를 따라 집집마다 찾아가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관리되는 주소가 틀린 경우도 많았고 기초수급대상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주거환경에 비해서 제도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시, 행정적인 주소를 따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삶의 진짜 주소를 찾는 작업부터 시작되었다. 대부도 사진클럽의 멤버이기도 한 김종선 대부도 발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16개의 통장님과 이장님의 도움을 받아 최종 32가구를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서류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을에서 모두가 알 만큼의 빈곤을 겪는 사람들이 1순위였다. 그 대부분이 홀로 살고계신 어르신이었다.

박준식 사진작가는 어르신들의 집에 찾아가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매 끼니로 먹은 듯 방 한가득 배어 있는 라면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제법 쌀쌀한 초겨울인데도 보일러를 틀지 않아 싸늘하게 식어있는 실내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창고 같이 낡은 집에서 칼바람을 뒹고 자는 어르신들 만나면서, 정말로 이들에게 문화예술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과 어떠한 태도로 접근해야하는가를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

작가가 직접 찾아다니 ‘가난한 삶의 진짜 주소’에는 문화예술의 소외만이 아니라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집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이 없었다. 이 프로젝트는 문화바우처의 의미가 무엇인가,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무엇으로 만날 것인가,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제도적 지원에서 벗어난 가난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 대부도 사진클럽입니다

### 기간

2011. 7 - 2011. 12

### 참여 작가 및 도움주신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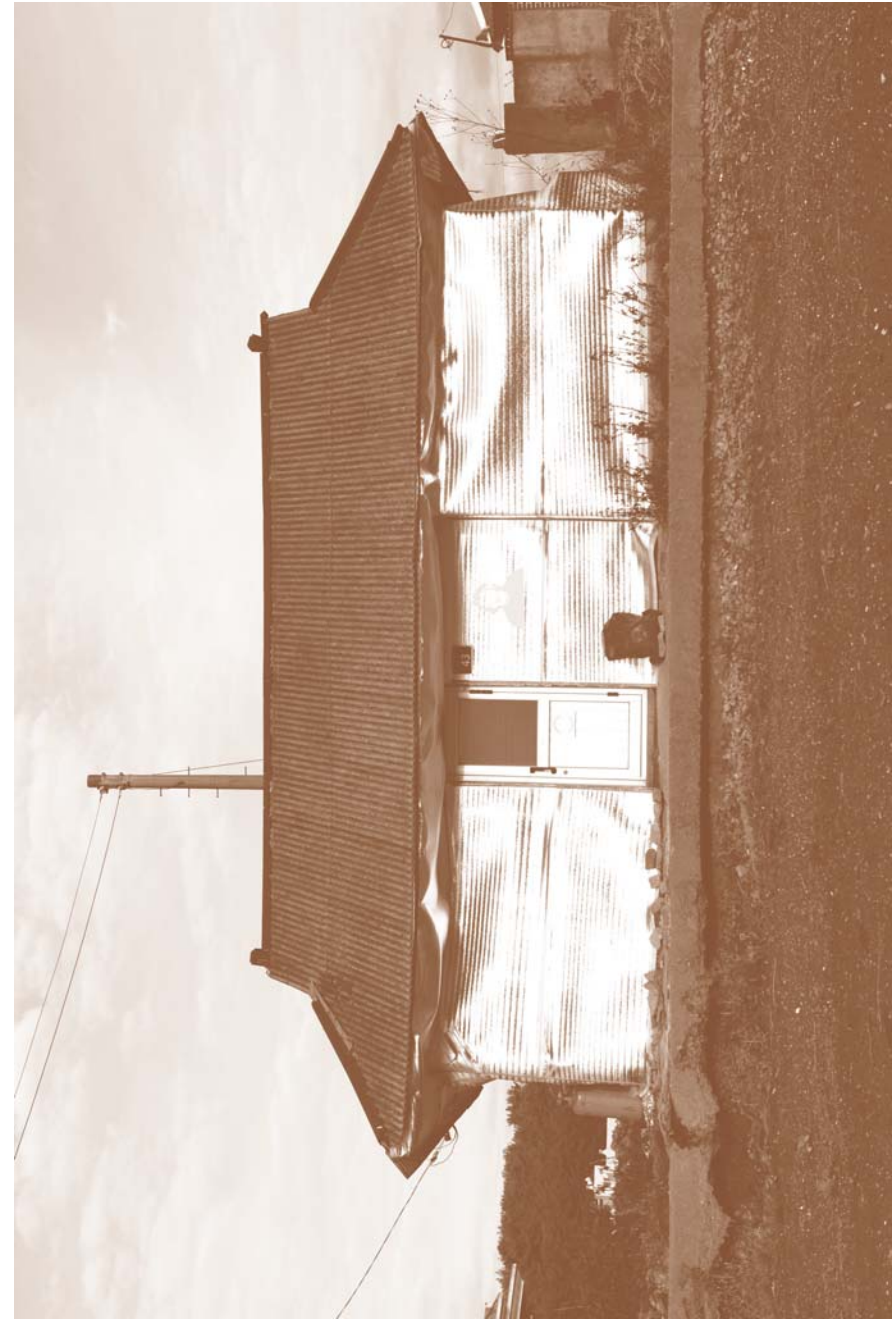
대부도 주민:  
김종선 대부도 상동발전위 회장,  
정성구 대부도 사진클럽 회장,  
정은미 대부도 사진클럽 회원,  
이강호 대부도 대영교회 목사님

### 참여 작가

박준식, 정기현, 홍남기,  
성승혜, 신민임

### 참여 대상

조사가구:  
총 88가구  
선정 대상가구 및 인원:  
총 32가구, 인원 36명



1



2

1  
대부도 1호 실버하우스  
(권완분 할머니 덕)

2  
대부도 1호 실버하우스  
작업과정

### 찾아가는 사진관

#### 박준식

사람들이 간직하고 싶어 하는 사물, 순간, 가족사진, 장수사진 등을 촬영한 후에 액자에 넣어 전달한다.

#### 실버 하우스

##### 정기현, 박준식

난방이 거의 되지 않는 독거노인의 집 외부에 방풍 작업을 하고, 방풍 작업을 한 외벽에 그림 문패를 그려서 어르신과 이웃에게 정서적인 즐거움을 준다.

#### 그림 문패

##### 홍남기, 성승혜

외롭게 살아가는 어르신의 집 외벽에 그분들의 모습을 벽화로 그려서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소한 계기를 제공한다.

### 온돌 프로젝트

#### 홍남기, 박준식

온열 물리 치료를 자주 받아야하지만 비용과 거리 문제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대부도 지도를 이미지화한 전기 찜질기를 제작하여 나눠 드린다.

#### 12월 24일 나눔행사

##### 김종선, 박준식, 홍남기,

##### 성승혜, 정은미, 신민임

작가와 대부도사진클럽 회원들(지역 주민)과 함께 프로젝트의 결과물 '사진액자, 찜질기'를 집집마다 방문하여 전달한다. 평소에도 외롭지만 크리스마스에 더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마을 주민과 함께 만든 가가호호 케이크를 함께 전달한다.

3

온돌 프로젝트  
(백정현 할아버님 댁)

4

찾아가는 사진관  
(김태순씨 가족사진)

5

12월 24일 나눔 행사

6



6

그림문패 작업과정

7

그림문패  
(박재학 할아버님 댁)

4



3



5



7



이렇게 집에서 연주를 듣는 것은 어디에 신청해야하는 거죠?

제 친구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어서요.

와상장애인 K씨

### 재능기부 재가방문

'재능기부 재가방문'은 재능기부를 신청한 31팀 155명 중에서 22팀, 총 120명의 예술재능기부자로 참여하였다. 재가방문이란 문화예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아동의 일상적인 공간인 집에서 지역 예술가의 공연, 연주, 체험 등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능기부 재가방문으로 많은 예술재능기부자들이 사회복지기관과 생활시설에서 작은 규모의 공연, 연극, 체험 등의 문화예술 활동을 나누었다.

사회복지기관과 생활시설에 예술재능기부자들의 작은 규모의 공연이 이뤄진 이유는, 기관의 재가복지 담당자와 함께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예술가들이 찾아가는 '집'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추상적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은 생활시설에 모여서 살고, 가난한 어르신들은 쪽방에서 지내거나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살고 있었다. 또한 저소득층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곳이 그들의 일상의 공간이자 집이었다. 그래서 예술재능기부자들은 생활시설과 사회복지기관에서 찾아가서 연주를 하고 공연을 하면서 장애인을, 어르신을, 아이들을 만났다.

도예가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만든 도자기를 구워서 보내고, 만돌린 연주는 와상장애인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며 만돌린 연주를 하고, 극단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린이뮤지컬 공연을 보여주고 그들이 불러주는 노래를 들었고, 무용가는 주간보호센터의 어르신들이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함께 몸짓을 나눴다. 그리고 12월 26일에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예술재능기부자들을 초청하는 예술재능기부자를 위한 '땡스땡스파티'가 열렸다.

이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는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과 누군가의 집으로 초청받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것은 섬세한 붓질을 하듯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가난은 예술이 스며들 수 있는 일상적인 공간도, 예술가와의 만남을 상상하는 생각의 공간도 삼켜버릴 만큼 '굵주린 실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의 지역까지 예술을 나누려는 예술재능기부자들이 있으니 우리 사회가 그렇게 절망적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

### 재능기부 재가방문

기간  
2011. 7 - 2011. 12

**예술재능기부자**  
극단 여행과 꿈,  
나누리문예창고,  
박성실 디딤예술단,  
유혜진 그림하우스,  
광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  
폴클랑 줄리स्ट렌,  
청춘극단,  
춤극단,  
음악동인교류,  
이혜란 클레도예,  
소리벗양상블,  
박란주세계예술단,  
맘앤만돌린챔버,  
한울청소년교육문화연구소,  
예술마당살판,  
백미래, 정균재, 진향래,  
김병규, 복영화, 구봉찬

**신청 기관**  
소망재활원,  
한사랑복지센터,  
중증장애인요양시설 해밀,  
다비타의 집,  
운보원,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여주 천사들의집,  
평화재활원,  
호세아동산 사랑과평화복지재단,  
동트는 마을,  
작은자리 은빛사랑채,  
금사지역아동센터,  
권선초등학교,  
도원초등학교,  
맑은샘지역아동센터,  
이루리지역아동센터,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오산신경정신병원

**코디네이터**  
이은선, 장혜윤

**가갸호호 문화교감 카페**  
cafe.naver.com/gagahohoco

### 김병규 - 만돌린 연주자

4층에 거주하는 분을 방문하였습니다. 좁은 계단은 약기를 조심스럽게 들고 갈 정도로 좁았습니다. 장애인이 다니기에는 매우 불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는 좋아하는 음악 취향을 물어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이태리 칸초네와 한국 고전가요를 좋아하셔서 별 문제 없이 연주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음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답변을 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 진향래 - 무용가

어르신들이 저를 기억 해주시고, 시작 전에 간단한 담소를 나누면서 어르신들의 몸의 불편함이나 건강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고려 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뇌졸중으로 몸의 반쪽이 마비 증세가 있어서 혈액 순환을 위한 움직임을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열심히 참여해주셨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일과 만남에 대한 감정을 손짓으로 표현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강압적으로 참여해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 후에 시도를 하실 수 있겠냐”고 다시 물어보았는데, 그 방법이 어르신들께서 그 다음 움직임을 하는데 불편함 없이 동참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가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함께 다 같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극단 여행과 꿈

유아들부터 초등학생까지 열다섯 명 정도 되는 어린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공연 시작 한 시간 반 전에 도착해서 무대를 세팅하고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도 호기심에 가득한 아이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좁은 공간, 바로 눈을 마주치며 하는 공연 내내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공연 소품과 대도구들, 워셔블을 만지고 구경하며 신기해했습니다. 정리 다 끝나고 가려니, 한 아이가 가지 말라며 울음을 터뜨려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 이혜란 - 도예가

치매 어르신들과 지적 장애 청소년들과 함께 장독대도 만들어 보고 집도 만들어 보고 택시와 동물 등이 있는 행복마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만드신 작품 중에는 추수가 한창인 가을느낌처럼 광주리에 한가득 했습니다. 또 감자를 만들어보신 할머니도 있었고 계속 못한다고 하셨던 할머니 한분도 동글동글하게 팔죽의 새알을 만드시는 듯하더니 포도송이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도자기 수업을 제법 잘 따라와 주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1



2



3



4



5



6



7



1  
충여람 - 고양시  
중증장애인요양시설 해밀에  
사는 장애인을 위한 전통  
춤 공연

2  
이혜란 - 파주시  
파주문산종합복지관의  
장애인, 어르신을 위한  
도예 프로그램

3  
음악동인고물 - 수원시  
권선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전통기악합주 공연

4  
음악동인고물 - 수원시  
권선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전통 악기 체험 프로그램

5  
김병규 - 안양시에  
거주하는 외상 장애인을 위한  
만들린 연주

6  
구봉찬, 복명화 - 안양시에  
거주하는 외상 장애인을 위한  
만들린 연주

7  
극단여행과공 - 연천군  
동트는 마을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뮤지컬 공연

가거홀-문화교감

재능기부 재가방문

나는 플루트 모양이 너무 예쁘고 색깔도 예쁘고 너무 예뻐서  
플루트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플루트를 해서 기분이 좋다. ㅋㅋ  
김수빈

오케스트라를 앞으로 안 빠지고 잘 하고 싶다. ㅋㅋ  
그리고 바이올린을 한번도 못해봐서 열심히 하고 싶다. ㅋㅋ  
기분은 기쁘고 재미있을 것 같다. ㅋㅋ  
김수민

### 크크 오케스트라

‘크크 오케스트라’는 광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단원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성남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 중에서  
악기를 배우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건으로 기회가 없는 24명의 아이들에게  
악기를 제공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오케스트라이다.

크크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은 아이들이 오케스트라가 된 소감문에  
적어놓은 ‘ㅋㅋ, ㅋㅋㅋ’을 담아 지어졌다. 아이들이 억지로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신나고 기쁜 마음으로 악기를 배우고 연습하기를  
응원하는 의미인 셈이다.

첫 번째 날에 24명의 아이들의 간단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엄청난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긴장하던 아이들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조곤 조곤 악기를  
배우고 싶은 이유들을 말했다. 인터뷰가 끝나고 아이들에게 12개의 바이올린,  
4개의 첼로, 4개의 플루트, 4개의 클라리넷 중에서 연습할 수 있는  
악기가 정해졌다.

크크 오케스트라 아이들은 자신이 연주하게 될 악기를 만지면서  
“악기를 집에 가져가서 연습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고 말하며 활짝 웃는다.  
그렇게 자신의 집에서도 연습하고 매주 한번씩 모두 모여서 악기별로 연습하고  
합주 연습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을 위해서 광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레슨을 해주었고  
지역교회에서 함께 모여 연습할 수 있도록 장소를 빌려주었고 광주악기사에서  
악기별로 음악 교재를 기부해주었다. 또한 각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이  
아이들 곁에서 응원해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습하는 과정이  
힘들다고 불평하면서도 “힘들어도 재밌다”며 연습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작은 별처럼 빛이 났다.

그리고 겨울이 왔다.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이 끝나는 겨울이 왔고,  
크크 오케스트라가 끝나는 겨울이 왔다. 크크 오케스트라 아이들이 묻는다.  
“내년에도 연습 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돌려줘야 해요?”,  
“우리 이제 더 배울 수 없어요?”

### 크크 오케스트라

기간  
2011. 7 - 2011. 12

참여 단체  
광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임현식 지휘,  
김보윤,  
유지나 바이올린,  
곽지은 플루트,  
김환은 첼로,  
김안나 클라리넷

크크 오케스트라 단원  
바이올린 이정희 포함 총 24명

코디네이터  
이은선

정드보라  
나는 오케스트라에 바이올린을 하  
는데 재미가 없을까 알았는데  
재미가 쏠쏠했다. 선생님  
도 좋고 이쁘다. 근데 바이올  
린을 하는데 팔이 아프고 다  
리도 아픈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연습했다.

대박~~~  
(히히) 예롱  
크크 오케스트라  
크크 크크크크크크크크크

기대된다.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보니 신기하다.

경예

이름이름히

저는 바이올린이 너무  
좋아요.

이선희  
바이올린을 하고 싶었는데 하게 되  
어서 기쁘다.

유연수

유연수

저는 너무 떨리지만 그래서 기쁘다. 그런데 저는  
바이올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하게 습  
니다.♡

이금희

저는 바이올린이든 등하게 되어서 기쁘고 좋  
아요. 그리고 바이올린이 많아요.  
어고 그리고 바이올린을 집에 갖고 가  
니까 좋아요.

5학년 최성은 -첼로-

선생님의 연주가 멋졌다  
나도 그렇게 될 날이 올까?  
(한 3년쯤 아님 4년? ㅠㅠ)

1



2



3



4



5



6



7



1

크크 오케스트라의  
합주 연습 시간

2

플루트 연주 실력이  
늘어서 기뻐요

3

바이올린 연습에  
집중한 아이

4

플루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모습

5

서로의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 모습

6

악기별로 모여서  
연습하는 시간

7

크크 오케스트라의  
합주 연습 시간



낮달은 달은 혼자 힘으로 낮달 문화소풍은  
우수한 공연과 전시 관람을 지원하고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버스로 모셔오는 문화서비스이다.  
우리 사회의 어둠 속에 선명한 달은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이라고 한다면 그 달을  
밝은 낮으로 초대하고 싶은 조심스러운 마음을  
담아 운영했다. 낮에도 빛나는 달의 풍경을 상상하던  
낮달 문화소풍은 4개월 동안 총 6954명이 함께한  
유쾌한 나들이가 되었다.

낮달  
문화소풍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유독 많은 저희 센터는,  
이런 체험의 기회가 참 귀하고 귀하합니다.  
흥덕지역아동센터

관광버스도 보내주고 맛난 저녁식사까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지부

### 낮달 문화소풍

‘낮달 문화소풍’은 2011년 8월부터 55개의 공연 전시프로그램,  
207개 단체(6,954명)가 참여한 유쾌한 문화예술 나들이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 공연 전시 관람을 원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지역 미술관 박물관 아트센터에 버스 모셔와서 우수한 공연,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공정한 프로그램과 참여단체 선정을 위해 공연 전시 관련 전문가들과  
각계의 복지전문가들이 낮달문화소풍 프로그램과 참여단체 선정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선정위원들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하는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자문회의를 통해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예술현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논의하였다. 낮달 문화소풍은 문화예술에 접근성이 취약한  
사람들을 공연장과 전시장에 모셔오는 것에만 의의를 두지 않기 위해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자 했다.

유쾌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공연 전시 관람을 할 때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극놀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었다. 연극놀이 강사들이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날의 친구가 되었고, 낮달 문화소풍에서 준비한 간식과  
식사로 풍성한 나들이가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가난의 문제를 어두운 밤이라 한다면,  
한편으로 가난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만 실상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의 시선과 태도 역시도 밤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밤에 선명한 달은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이다.  
달은 혼자 힘으로 빛을 내지 못한다. 그래서 낮달 문화소풍은 밤에 뜬  
달을 밝은 낮으로 초대하고 싶은 조심스러운 마음을 담은 과정이었다.  
밝은 낮에도 빛나는 달의 풍경을 상상하며.

### 낮달 문화소풍

기간  
2011. 5 - 2011. 12

참여 프로그램  
뮤지컬 청 외 54개 프로그램

참여 단체  
마음샘 정신재활센터  
외 206개 단체

코디네이터  
김성모

연극놀이 강사  
조강이, 김보기, 윤보경,  
남유진, 손영인, 신미주,  
박정아, 정영희, 김아람,  
유동현, 강지윤, 백석현,  
임성혜, 이정훈, 배진화,  
정혜연, 김현진, 임주미,  
하연숙, 이은정, 백은숙,  
오혜진, 김현희

도움주신 프로그램 선정  
자문위원, 복지단체 선정  
자문위원 분들  
김병호 아시테지 코리아 대표,  
소홍삼 의정부예술의전당 팀장,  
이미영 경기도 문화의 전당 팀장,  
한경희 경기도 아동상담소 소장,  
강병모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연합회 사무처장,  
박일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부장,  
정경 전국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경기지부 회장

‘낮달’ 문화소풍의 카페  
(cafe.naver.com/  
culturepicnic)는 현재  
470명의 사회복지관계자가  
가입되어 있으며, 낮달  
문화소풍으로 진행되는  
공연 목록을 게시하고 참여를  
원하는 복지단체의 신청과  
후기를 받고 있다.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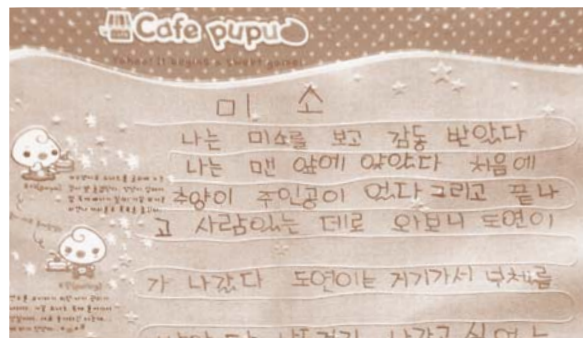
낮달 문화소풍  
참여 모습

2

아이들이 쓴  
낮달 문화소풍 후기



2



공연	장소	단체	인원
5. 24 뮤지컬 청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미음샘 정신재활센터	40
5. 27 미술이 음악을 만났을 때	경기도 미술관	일자리 원스타팀 센터	70
6. 11 창유지컬 미소	가평문예회관	고양시 원스타팀	90
8. 3 발레발레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오름지역아동센터, 웰피 맑은샘지역아동센터, 채키부키지역아동센터	53
8. 13 곤충체ละคร	하남문화예술회관	검단산길 지역아동센터, 한마음 지역아동센터	91
8. 13 신나는 클래식 Listen & Song	하남문화예술회관	기쁨지역아동센터	33
8. 15, 17 꿈꾸는 거북이	고양어울림누리	새꿈터,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새누리 장애인부모연대 파주지부, 큰나루 지역아동센터	154
8. 17 클래식과 재즈의 아름다운 우정의 시작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고양 직업 전문학교 취업지원센터, 정선요양시설 뷔에원, 고양 열린 청소년 센터, 영산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680
8. 17 영재이 유세	이랑세아터	영산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기쁨 꽃동네 부랑인시설, 포천 분도마을, 기업이 좋은 곳, 수원희망지역아동센터	163
8. 20 청소년을 위한 코미 오페라 사랑의 묘약	성남시민회관	명문보육원, 애덕의집, 수원시 정신보건센터, 가평 꽃동네 부랑인시설, 포천 분도마을, 기업이 좋은 곳, 수원희망지역아동센터	172
8. 20 마당극 호랑이 이야기	과천시민회관	충덕지역아동센터, (사)나성원,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성남시 장애인 장애인 복합사업장	84
8. 20 형형색색	전곡선사박물관	큰사랑지역아동센터, 세희망 지역아동센터, 바다의 별, 위스타트 성남 목련마을	102
8. 20 어린이 뮤지컬 송승환의 피노키오	하남문화예술회관	아이들웃음터지역아동센터, 드림지역아동센터, 포천시 정신보건센터	68
8. 21 꿈꾸는 거북이	고양어울림누리	은누리지역아동센터, 기쁨지역아동센터	30
8. 27 영재이 유세	이랑세아터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파주시지부	30
8. 27 뮤지컬 二色漣風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수원시정신보건센터	40
8. 27 애락사티	안산문화예술회관	신생보육원, 내리지역아동센터	83
8. 27 군포 어린이난타	군포시문화예술회관	기안지역아동센터, 평문지역아동센터	30
8. 31 가족마당극 '학수고대'	의정부예술의전당	블루른지역아동센터	34
8. 31 리움미술관	리움미술관	영랑경로원, 의정부시 노인보건복지연계센터,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	101
9. 3 팻줄함몰과 호랑이	평촌아트홀	에이블아트센터	19
9. 3, 17, 24 형형색색	남양주 신희박물관	인양시 민간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24
9. 16-17 구름빵 이야기	남한산성	성남시 원스타팀 푸른마을 보육센터, 새류지역아동센터, 공평이 동산 지역아동센터, 한마음 지역아동센터, 안양시 민간 청소년 수련관, 관산초등학교, 직은행복지역아동센터, 램프지역아동센터, 운보원, 다바타의 집, 양평 평화의 집	1040
9. 26, 28 키지니아	경기도미술관	세석방과후공부방, 푸른학교 두레교실 지역아동센터, 새누리 장애인부모연대 파주시지부,	226
9. 28-30 달래야기	키지니아체험관	새누리 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지부, 동성교회 지역아동센터	242
10. 1 미운오리새끼	의정부예술의전당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 웰피 맑은샘 지역아동센터, 곤쟁이 동산 지역아동센터, 화성지역아동센터, 화성기득 공부방지역아동센터, 희망찬지역아동센터	170
10. 1 햄펍과 그레텔	의정부예술의전당	희망찬지역아동센터, 신생보육원, 신한 시니어아원, 새류지역아동센터	169
10. 1 드림카툰 페스티벌	의정부예술의전당	시흥 직은자리 지역아동센터, 팔달 희망 마을 지역센터, (우)은개어경기, 양평 지역자활센터, 하안 종합사회복지관,	34
10. 1 두드락	수원화성박물관	허상원,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	73
10. 4-5 서커스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세석방과후공부방, 푸른학교 두레교실 지역아동센터, 새누리 장애인부모연대 파주시지부,	119
10. 5 조각을 맞춰요	상록구청	은누리 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지부, 동성교회 지역아동센터	42
10. 5 누리 토치 외 2편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 웰피 맑은샘 지역아동센터, 곤쟁이 동산 지역아동센터, 화성지역아동센터, 화성기득 공부방지역아동센터, 희망찬지역아동센터	90
10. 5 동물들의 사유제	경기도평생학습관	희망찬지역아동센터, 신한 시니어아원, 새류지역아동센터	10
10. 8 삼바소우 외 1편	경기도평생학습관	시흥 직은자리 지역아동센터, 팔달 희망 마을 지역센터, (우)은개어경기, 양평 지역자활센터, 하안 종합사회복지관,	12
10. 8 귀뚜라리의 음악여행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수원 명린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108
10. 8 초원의 신기루	국립극장 별오름	와 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18
10. 15-22 소리로 푸는 하얀 동그라미	국립극장 별오름	사랑지역아동센터, 새누리 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지부, 동성교회 지역아동센터	32
10. 22 우어파우스트	국립극장 별오름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 웰피 맑은샘 지역아동센터, 곤쟁이 동산 지역아동센터, 화성지역아동센터, 화성기득 공부방지역아동센터, 희망찬지역아동센터	117
10. 26-29 재크의 요술지갑	국립극장 별오름	희망찬지역아동센터, 신한 시니어아원, 새류지역아동센터	77
10. 27 화신 김홍도	국립극장 별오름	시흥 직은자리 지역아동센터, 팔달 희망 마을 지역센터, (우)은개어경기, 양평 지역자활센터, 하안 종합사회복지관,	154
10. 28 늑은 자전거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명린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75
11. 2-6 재크의 요술지갑	국립극장 별오름	와 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111
11. 2-11 이상한 수호천사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229
11. 4-5 브레넬 음악대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58
11. 12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375
11. 12 난타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194
11. 19 넌센스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158
11. 23-30 전국선사박물관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67
11. 24-26 설행묵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405
11. 26 점포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17

22

10. 1 미운오리새끼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34
10. 1 햄펍과 그레텔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73
10. 1 드림카툰 페스티벌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119
10. 1 두드락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117
10. 4-5 서커스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169
10. 5 조각을 맞춰요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33
10. 5 누리 토치 외 2편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42
10. 5 동물들의 사유제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90
10. 8 삼바소우 외 1편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10
10. 8 귀뚜라리의 음악여행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12
10. 8 초원의 신기루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108
10. 15-22 소리로 푸는 하얀 동그라미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18
10. 22 우어파우스트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32
10. 26-29 재크의 요술지갑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117
10. 27 화신 김홍도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77
10. 28 늑은 자전거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154
11. 2-6 재크의 요술지갑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75
11. 2-11 이상한 수호천사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111
11. 4-5 브레넬 음악대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229
11. 12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58
11. 12 난타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375
11. 19 넌센스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194
11. 23-30 전국선사박물관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158
11. 24-26 설행묵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67
11. 26 점포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405

33

11. 2-6 재크의 요술지갑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375
11. 2-11 이상한 수호천사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194
11. 4-5 브레넬 음악대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158
11. 12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67
11. 12 난타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405
11. 19 넌센스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17
11. 23-30 전국선사박물관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304
11. 24-26 설행묵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466
11. 26 점포	국립극장 별오름	수원 원안학교 매탄동 교실, 푸른지역아동센터	466
12. 10 과천국립과학관	과천국립과학관	인성 신생보육원, 파주 보육원, 평택 천혜보육원, 안양 평화의 집, 시흥송암동산, 양주 광명 보육원, 사회복지법인 상상복지회 우리집, 백산초등학교, 금명중학교	238

활생(活生) 문화공명은 경기도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회공헌형 3D업종 종사자를 위한 예술 오마주 프로그램이다. '활생(活生)'이란 뜻은 활빈(活貧: 가난한 사람을 도움)이란 용어에서 파생되었는데, 활생 문화공명은 '가난'을 돌보는 동시에 '삶'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이 큰 울림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이기도 하다.

경기도의 6개의 지역의 대안 공간의 작가들이 참여하였다. 수원의 대안공간 눈과 이웃(EWUT)이 지역아동센터교사들을 만나고 안양의 스톤앤워터와 소셜아트컴퍼니가 집배원들을 만났다. 안산의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는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을 만나고 안성의 대안미술공간 소나무는 임시직 특수교사들을 만났다. 포천의 문화살롱 공은 소아암 간병인과 백혈병 어린이 가족들을 만나고 부천의 아트포럼 리에서 환경미화원들을 만났다.

## 활생 문화공명



수영장 약품 정밀 독해, 설 공간도 없고. 캐비닛 구석에서 혼자 밥 먹을 때 외로운데, 시험기간에 참 좋아. 애들 보면 물어보지. 너네 언제 또 시험 보니? 참여 작가 중

쪽팔린데, 나 이렇게 청소일 하는 것 참피한데... 내 하는 일을 누구한테 보여 줄라고? 참여 작가 중

누가 이런 생각을?! 재미있겠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해도 돼? 내가 작가라고? 작품 구상해봐야겠다! 참여 작가 중

**도시 스킨 케어링  
아트포럼 리 - 부천**

‘도시 스킨 케어링’은 도시의 환경과 미관을 책임지는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환경미화원의 일상을 리서치하며 창작 활동을 하는 프로젝트이다. 학교에서 청소하는 많은 사람들이 휴교일에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어도 여가를 누리지 못 한다는 점과 많은 사람들이 용역으로 흩어져서 일하고 있어 서로간의 커뮤니티 형성이 어렵다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접근하고자 했다.

이 프로젝트는 저임금과 단순노동의 대명사로 환경미화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예술에 대한 수동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서 직접 참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과 동시에 문화예술의 이해와 가능성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무쓸모의 쓸모’ 프로젝트는 늦은 가을날에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해야하는 길가의 낙엽을 질료로 사용하여 드로잉 퍼포먼스를 했다. 낙엽으로 만든 글씨는 처음에는 ‘청소’에서 ‘사랑’이 되고, ‘사랑’이라는 글씨는 ‘하트’ 모양의 그림이 되었다. 각자의 작업이 공동의 작업으로 확장되면서 작업은 ‘스마일’ 모양으로 끝을 맺었다.

‘청소드로잉’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들은 새벽의 청소차를 따라다니면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작가들은 드로잉 작업과 청소차 뒤에 꼭예하듯 위태롭게 매달려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청소 작업을 결합했다. 그들은 길 위에서 계절별로 겪게 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은 말들을 청소드로잉으로 표현했다.

‘청소도구의 재발명’ 프로젝트에서는 일상적으로 일 할 때 쓰는 청소도구를 달리 보는 작업이었다. 기능적으로 재발명하고 재창작해서 쓰는 청소 도구들을 리서치 했고, 그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낸 재발명 아이디어들을 도면으로 모아서 창작자의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새롭게 제작된 오브제들은 전시되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였다.

환경미화원 작가들은 거품 드로잉 작업에 참여할 때 지하의 실내 공간 유리에 비누거품으로 아들 이름 석 자를 쓰는 등의 소극적으로 표현을 시작했다. 하지만 점차 거품 드로잉의 즐거움을 즐길 수 있게 된 작가들은 자유로운 방식으로 작업하며 표현했다. 이러한 모든 프로젝트의 과정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부천 아트포럼 리에서 전시되었다.

**도시 스킨 케어링  
아트포럼 리 - 부천**

기간  
2011. 9 - 2012. 1

**참여 작가 및 도움주신 분들**  
기획, 리서치, 아카이브:  
김미경, 민경은, 윤기연,  
이훈희, 정희영

**청소드로잉 작가**  
(주)크린서비스청:  
김미자, 김순임, 이임란,  
심재녀, 조정례

**무쓸모의 쓸모 작가**  
(주)우렁각시매직케어:  
김인중, 박영준,  
박태심, 이종현

**청소도구의 재발명**  
김미경, 민경은, 윤기연,  
이훈희, 정희영, 이명구,  
장성진

**참여하신 분들**  
청소드로잉:  
작가 + 기획팀 = 10명 참여

**무쓸모의 쓸모:**  
작가 + 기획팀 + 일반시민 =  
30명 가량 참여

**청소도구의 재발명:**  
작가 + 기획팀 =  
10명 가량 참여

**아카이브 전시**  
100명가량 관람

1



2



1

낙엽드로잉  
무쓸모의 쓸모

2

도시스킨케어링  
아카이브전시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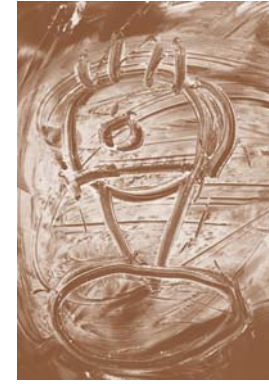
5



6



7



8



3

청소 드로잉  
김미자, 김순임

4

청소드로잉  
김미자, 김순임

5

청소드로잉  
심재녀

6

청소드로잉  
김순임

7

청소드로잉  
조정례 작품

8

청소드로잉  
심재녀작품

9

청소드로잉  
조정례

9





넌 나 뭐줄래?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 안성

'넌 나 뭐 줄래?' 프로젝트는 안성의 특수교사들을 위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 아이들의 삶과 가장 친밀한 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특수교사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수교사들은 학교 안팎에서 장애 아이들을 돌보지만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특수교사들이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들의 삶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사회의 장애 아동들을 위해 마련하는 시간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초대합니다'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작업이었다.

'돌아봄 워크숍'에서는 미술로 표현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나의 재발견'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현장에서 자연미술작업으로 이어져 특수교사들은 스스로가 작가가 되어 자신만의 언어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작업들이 이어졌다. 자신의 일상을 남긴 사진작업들은 안성 죽주 산성에 있는 공주 연미산자연미술공원과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에서 전시되었다.

'두드림 워크숍'에서는 재활용 PVC통을 이용하여 타악기를 직접 만들었다. 그리고 난타북 연주를 익혔으며 모두 각자의 소리를 모아서 커다란 울림을 만들어 내는 감동을 경험하였다.

안성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의 협조로 특수교사와 장애 아이들이 다함께 '미술관 소풍'을 떠났다. 이는 모두에게 생생한 교육의 현장이기도 했다. 이 날의 풍경은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였으며 이 모든 결과물들은 대안미술공간 소나무에서 'Exhibition+Talk+Concert' 발표회로 마무리되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특수 교사들은 동료 교사들과의 만남의 장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서로 마음을 모아 만든 전시와 공연의 내용과 자신을 돌아보고 동료를 돌아보는 과정들이 자료집으로 발간된다.

넌 나 뭐줄래?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 안성

기간  
2011. 9 - 2012. 1

참여 작가 및 도움주신 분들  
황미구 심리학 박사,  
전원길 미술 작가,  
이응우 미술 작가,  
박미희 난타 연주단 '쟁이' 단장,  
서지나 소설가, 사진작가,  
금은돌 리서치,  
안성 특수교사 연구회,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안성교육지원청,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아투'

참여하신 분들  
강은정 만정중 특수교사,  
구미숙 백성초 특수교사,  
김수진 조령분교 특수교사,  
김재영 일죽초 특수교사,  
박정은 만정초 특수교사,  
백은주 백성초병설유치원 특수교사,  
손진화 죽화초 특수교사,  
양현옥 미항초 특수교사,  
이도경 가을분교 특수교사,  
장옥수 죽산중 특수교사,  
조성덕 백성초병설유치원 특수교사,  
조안나 개산초 특수교사,  
최광오 서운초 특수교사  
외 각 선생님들의  
담당 학교 아이들

- 1 '초대합니다'(집단상담)에 참석한 선생님들이 즐겁게 서로를 나눈다.
- 2 돌아봄(미술)워크숍에서 공주자연미술비엔날레의 작업현장(충남 공주 연미산자연미술공원)을 찾다.

1



2



3



4



5



3

두드림(난타)워크숍에  
참여해 신나게 두드리며  
박자를 익힌다.

4

특수교육현장의 교사,  
학생들이 함께  
참가한 '미술관소풍'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 밥도 맛있다!

5

특수교육현장의 교사,  
학생들이 함께 참가한  
'미술관소풍'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 전시를 돌아보며  
선생님께 포즈를 취해준  
아이들의 표정이 해맑다.

6

특수교육현장의 교사,  
학생들이 함께 참가한  
'미술관소풍'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 누가누가 잘하나?

7

특수교육현장-아이에게  
'오' 발음을 익혀주기 위해  
루즈 바른 입술을 찍어  
소리내보기를 한다.

8

마지막 발표회  
'Exhibition+Talk+Concert'로  
그간의 작업을 마무리하다

6



7



8



평소에 그냥 스쳐지나갔던 생각을 다시 돌아보면서 좀 더 많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즐거운 수다시간이었습니다.  
틀에 얽매이지 않은 수업이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기르다' 수업 후기 중

편하게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서 좋았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타인에 대한 배려나 존중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예고~  
'이어그리기' 수업 후기 중

**예술수다로 돌A봄**  
**대안공간 눈 & 이웃 EWUT - 수원**

'예술 수다로 돌A봄' 프로젝트는 수원시 전역의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을 위한  
예술과 수다를 융합한 문화바우처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기반이 빈약한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주목했다. 그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 돌봄 노동자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다뤄보고자 했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단계로 그동안 수원의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고자  
준비해 오신 수원여성회 장정희 대표님께 사회적 조사를 의뢰하였다.  
지역아동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역사와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과  
돌봄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조사한 내용들을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과 10주간에 걸쳐 '예술'과 '수다'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주변을 관찰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은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상대방이 원하는 모자를 제작하면서 서로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머리띠와  
코사지 같은 소품 만들기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들이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가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서로에게 의지하여 음악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는 과정을 통하여 서로 정서적 교류를 나누며 감성을 이야기하는  
'움직임 관련 워크숍'이 이어졌다. 이렇게 예술적 감수성을 표현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과정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기획에도  
도움이 되었다.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적 역량이 강화될수록 2차적  
대상인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러한 과정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참여한 선생님들이 만든  
작품들과 영상을 함께 아카이브 전시를 열고 가든파티를 개최하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였다.

'예술 수다로 돌A봄'를 마치며 가장 아쉬운 점은 참여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없는 구조상의 문제이다. 지원 사업으로  
진행한 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꾸준히 다음단계로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의  
욕구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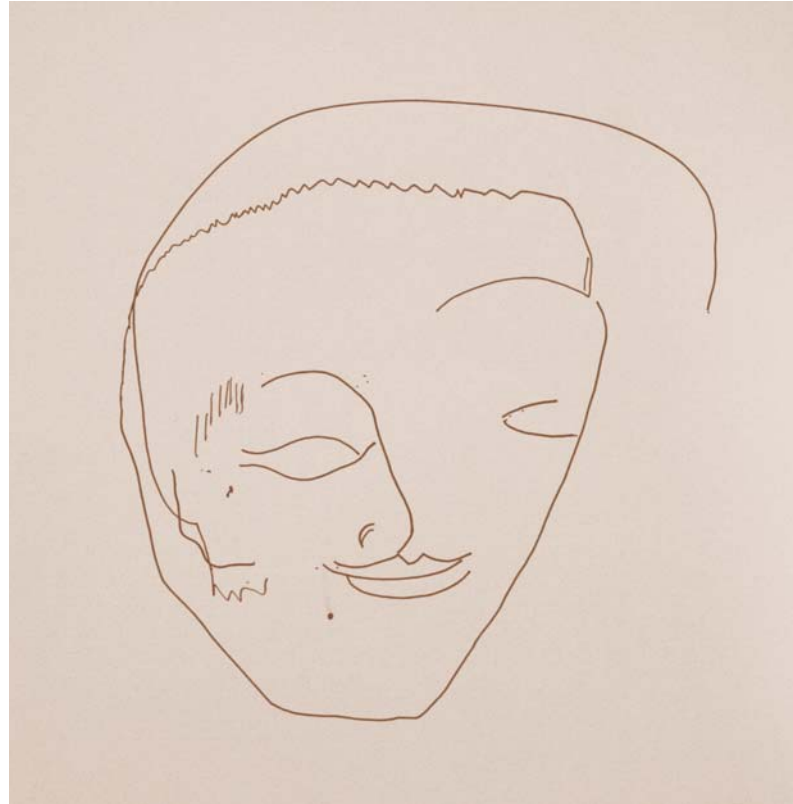
**예술수다로 돌A봄**  
**대안공간 눈 & 이웃 - 수원**

**일시**  
2011. 9 - 2012. 1

**참여하신 분들**  
강영심, 김분여, 임혜경,  
엄현희, 김명자, 기은성,  
조선희, 최영희, 최수정,  
한복녀, 윤소영, 이순희

**참여 작가 및 도움주신 분들**  
가옥 김화용, 심재경,  
윤숙희, 이웃 EWUT,  
대안공간 눈,  
행궁동 레지던시,  
수원시 지역아동센터협회,  
수원여성회

1



1  
긋다  
- 스스로의 직관을 믿고  
그것에 의지하여 그린다

2  
만들다  
- 너를 위해  
만드는 모자

2







만들다2  
- 누에고치 대작전  
일상속에서 버려진사물과  
흔적들로 만든 악세사리

기르다  
- '기르다'라는 말이 연상시키는  
느낌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평소  
길러보고 싶었던 것들에 대한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교환한다.

유획본능  
- 집단, 조, 개인 내면의  
예술적 움직임을 통해  
유획본능을 탐색

신체 본뜨기  
- 자신의 감성, 기질 및  
예술적 감각을 일깨운다.



손편지 쓰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최재호 - 안양우체국 우편물류과 팀장

집배원 몇몇 분들이라도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게 6자회담 6개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보다 더 어렵구나.

임진세 - 진행

오늘은 몇 통이나 왔어?

박찬응 - 기획총괄

### 집배원의 손편지

#### 스톤앤워터 & 소셜아트컴퍼니 - 안양

“차이들도 불구하고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때문에 연대할 수 있다고 하는 대안 모델은 실천적 삶의 영역에서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대안 모델은 상호 인정의 정치와 문화적 관용을 향해 실질적인 공동 행동을 조직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sup>1</sup>

‘집배원의 손편지 프로젝트’는 안양의 스톤앤워터와 소셜아트컴퍼니가 ‘집배원’과 ‘손편지’라는 두 가지 코드를 통해 협력했다. 언제인가부터 이 두 코드가 우리 사회에서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에 주목했다. ‘집배원’은 단순 배달업으로 ‘손편지’는 구태의연한 매체로 전락해버린 시대적 흐름을 돌아보며, 이 둘을 서로 연결하여 새로운 문화적 공명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 프로젝트다.

하지만 초기 구상단계의 낭만적 희망은 기대와 달랐다. 안양우체국 집배원 등 안양지역 집배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손편지 공모전에는 100명이 훨씬 넘는 집배업무 종사자 중 실질적으로 8명의 응모자가 참여했을 뿐이었다. 또한 글을 쓰는 2명의 전문위원을 투입하여 집배원들의 삶을 밀착 취재하려 시도했던 인터뷰와 워크숍, 현장취재, 편지 주고받기 등의 프로그램도 모두 순탄하지 않았다. ‘집배원’과 ‘손편지’는 서로 같은 처지의 다른 층위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집배원의 손편지’는 스톤앤워터와 소셜아트컴퍼니의 ‘기억을 배달하는 협력예술 프로젝트: 새 모자를 부탁해!’와 맥락상 연결된다. 집배원들은 일상을 기록하는 사진가가 되었고(안양을 달리다), 동네 어르신들은 시인이 되었으며(생애 최초의 시), 청소년들은 관악산에서 호랑이의 흔적을 탐사하고(관악산 호랑이), 오래된 사진 속에서 삶의 흔적들을 발견하는(미살로프로부터 온 편지) 등의 활동과 연속선상에서 기획되었다.

이러한 실천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가운데 지역성에 기반한 에코뮤지엄(Ecomuseum)<sup>2</sup>의 싹이 틀 것이다. 여기에는 ‘좋은과 착함’이라는 인간 본연의 감정을 매개로 하는 지역 예술가들의 지난하고도 꾸준한 협력 과정이 필수 요소였으며, ‘집배원의 손편지’ 프로젝트 역시 이와 동일한 가치를 모색하고 실천하였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차이와 공통, 자율과 나눔을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는 사회적 리서치 과정 그 자체로서 의의가 있다.

박찬응 - 기획 총괄

1  
홍영두, 자유주의적  
모더니티의 곤경과 기만당한  
공동선 (시각예술비평  
계간지 볼 Bol, 2007년  
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

2  
생태 및 주거환경을 뜻하는  
‘에코(eco)’에 박물관이란  
뜻의 ‘뮤지엄(Museum)’이  
결합된 단어로, 지역 고유의  
문화와 건축유산, 생활방식,  
자연환경 등을 그대로  
보존 계승하면서 이를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독특한 형태의 박물관을  
말한다. 주민들이 직접 박물관  
운영에 참가할 뿐 아니라  
전시 이외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불린다.

### 집배원의 손편지 스톤앤워터 & 소셜아트컴퍼니 - 안양

기간  
2011. 9 - 2012. 1

참여 작가 및 도움주신 분들  
기획총괄:  
박찬응

전문위원:  
강미, 정흥모

진행:  
임진세

공모전 포스터 제작 및  
프로젝트 디자인 전반:  
박찬경

공모전 심사위원:  
강미, 박찬응, 정흥모

사진촬영:  
박찬응, 이미술, 임진세,  
현소영

영상제작:  
박지원

삽화제작:  
박재완, 장준영

책자제작:  
 ㈜아침미디어

참여자:  
안양우체국 집배원 등  
안양지역 집배업무  
종사자 여러분들(120여명)

특별히 감사드릴 고마운 분들  
프로젝트 협력 수행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안양우체국  
윤기태 국장님(진)과 조올래  
국장님(현), 언제나 너그럽고  
넉넉한 미소를 보여주신  
안양우체국 우편물류과  
송만수 과장님, 번번이  
번거롭고 곤란한 부탁에도  
성심성의껏 협조해주신  
우편물류과 최재호 팀장님,  
항상 상냥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주신 우편물류과  
안수현 운용실주임님,  
집배원들의 공모전 참여를  
독려해주신 안양우체국  
이문철 집배실장님,  
프로젝트 수행에 지대한  
도움을 주신 주인두 회장님,  
임영선 부회장님, 진정안  
총무님, 안정웅 홍보담당님,  
윤여병 집배원님, 김광태  
선생님을 비롯한 안양우체국  
자원봉사 모임 ‘빨간우체통’  
모든 회원 여러분들,  
지적 장애인 보금자리  
‘베데스다 조기교육원’ 신옥자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장애인 분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신 안양지역  
민간자원봉사단체 ‘아낌없이  
주는 나무’ 박동진 회장님,  
맛있는 감사탕을  
아낌없이 제공해주신

과천시 ‘무안빨낙자’  
강해경 사장님,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제공해주신 석수동  
‘새마을슈퍼’ 이종훈 사장님과  
주인 아주머님, ‘안양을  
달리다’에 관한 이야기와  
사진과 책자를 제공해 주신  
장형순 작가님, 프로젝트  
수행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신 CAFE LIZARD 이소영  
사장님, 공모전에 사용된  
예쁜 편지지와 편지봉투를  
구비해놓으신 핫트랙스  
안양점 임직원 여러분,  
프로젝트 기간 내내 멋진  
모델이 되어준 안양우체국  
소속 오도바이, 석수동  
담당 집배원들에게 든든한  
점심식사를 마련해 주시는  
옛날순대국밥 전남집 사장님,  
집배원 손편지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안양지역 모든  
집배업무 종사자 여러분들,  
동료들의 손편지를 직접  
배달해 주신 석수동 담당  
임영선 집배원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손편지를  
주고받는 이름 없는 수많은  
영혼들과, 고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미소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마음을 배달하는  
우리시대 집배원’ 여러분들

1  
‘안양을 달리다’  
- 안양우체국 집배원들이  
배달 도중 찜찜이 손수 촬영한  
안양의 모습을 우체국 택배  
박스액자에 담아 전시하였다.  
이것이 ‘집배원의 손편지’  
프로젝트의 모티브가 되었다.







3



4



5



2

'덕분에 유명해졌네요.'  
- 공모전 포스터 모델로 선정된 신병철 집배원이 손수 응모한 손편지를 통해 유쾌한 감사의 말을 전해왔다.

3

'마음을 배달하는 우리시대 집배원의 손편지'  
- 곡곡 눌러쓴 그들 삶의 진한 흔적은 다른 동료의 손을 통해 배달되었다.

4

'행복의 메신저'  
- 석수동 집배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석수시장에 모여 점심으로 순대국 한 그릇을 후루룩 해치운다. 빨간색 오토바이가 줄줄이 모였다 점점이 사라지는 풍경은 아름답다.

6



5

'시동키 제거 및 우편물 분실 방지' (집배원 10대 준수사항 중)  
- 짧은 점심식사 시간에도 그들은 여전히 근무 중이다.

6

'집배원의 4계'  
- 인터뷰와 리서치를 통해 수집된 그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은 우리시대 손편지가 지니는 의미와 함께 책자와 영상물로 구성되었다.

7



7

'나눔은 행복입니다.'  
- 손편지의 온정을 몸소 실천하는 안양우체국 자원봉사 모임 '빨간우체통'은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매월 꾸준히 활동 중이다.



우리의 책 속에 '우리'를 담는 작업!

**수다.ZIP - 다문화 활동가들의 이야기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 안산**

'수다.zip-다문화 활동가들의 이야기'는 안산시 원곡동에서 이주민 인권 상담 활동과 다문화 가정 보육 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들과 안산 리트머스의 예술가들이 함께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에서 빈곤과 문화예술을 논의할 때,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운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를 말하는 책으로 엮어내는 예술 작업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자칫하면 다소 무겁고 민감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적인 다문화 논의처럼 이주민들에게 접근하려 하지 않았다. 가난과 삶의 질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예술, 다양한 삶에 대한 연구의 다변화와 확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했기에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현장 활동가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지난 10월부터 8명의 작가들은 두 명씩 모둠을 지어서 총 11개 이주민 지원 단체와 기관의 실무자와 활동가들을 만났다. 작가들은 활동가의 현장에 방문하면서 현장에서 이주민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했고, 때에 따라서 행사를 도우면서 활동가와 작가가 서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 작가들은 활동가 개인의 삶과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 참여한 활동가들은 작가와 함께 이야기들을 다양한 시점으로 포토에세이, 다이어리, 신문, 전기(傳記), 편지글, 인터뷰, 연극 해설, 동화, 만화 등의 다양한 장르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글과 그림들은 새롭게 재구성되어 책으로 만들어졌다.

지난 12월 18일에는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 그동안에 참여한 모든 활동가와 작가와 관계자들이 모여서 책 속에는 미처 들어가지 못한 사진과 이미지 작품 등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장 활동가에게 자신의 삶과 일에 대해 작가와 함께 책을 만드는 작업은 문화예술의 마중물과 같다. 책을 엮어내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지역 네트워크를 엮고 다양한 문화를 엮어내는 예술적인 작업이 되기를 희망했다.

수다.ZIP-  
다문화 활동가들의 이야기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 안산

기간  
2011. 9 - 2012. 1

**참여 작가 및 도움주신 분들**

곽소연 디렉터,  
박도빈 코디네이터,  
김현아 디자이너,  
송지은 작가-시각,  
이선영 대학생-텍스트,  
정철규 작가-시각,  
노슬기 대학생-시각,  
이현희 작가-시각,  
해애언 대학생-텍스트,  
설은경 대학생-텍스트,  
MSK 한국다문화학교,  
안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안산시 다문화가족  
행복나눔센터,  
안산 안다옥국제선교회,  
국경없는마음 다문화공방,  
글로벌미션센터,  
안산 엠마우스다문화센터,  
별나무 공부방,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 경기지부,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 모두,  
지구인의 정류장

**참여하신 분들**

강은이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센터장,  
최평수 다문화공방 활동가,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  
이강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사,  
전경천 다문화가족  
행복나눔센터 활동가,  
정상엽 안산 안다옥  
국제선교회 목사,  
최경식 글로벌미션센터 목사,  
박데레사 안산 엠마우스  
다문화센터 수녀,  
장미숙 별나무 공부방 간사,  
김주연 MSK다문화학교 활동가,  
이정란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 활동가

1



2



3



4



5



1

참여작가  
오리엔테이션

2

글로벌미션센터의  
목사님과 필리핀 이주민들이  
함께한 서로에게 편지쓰기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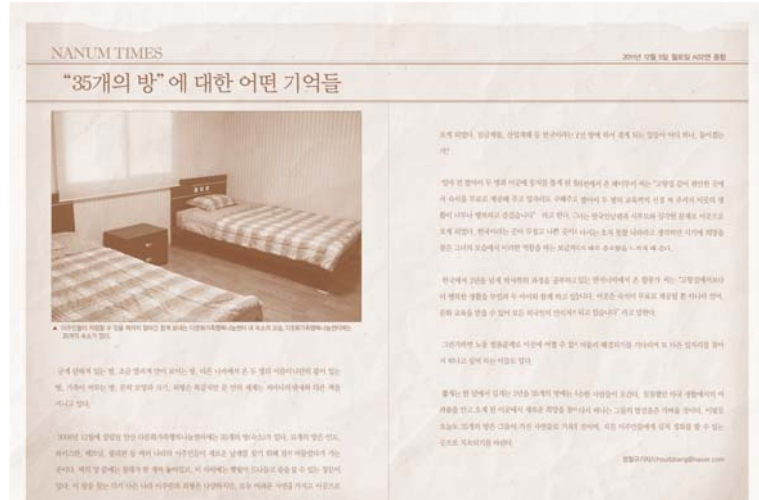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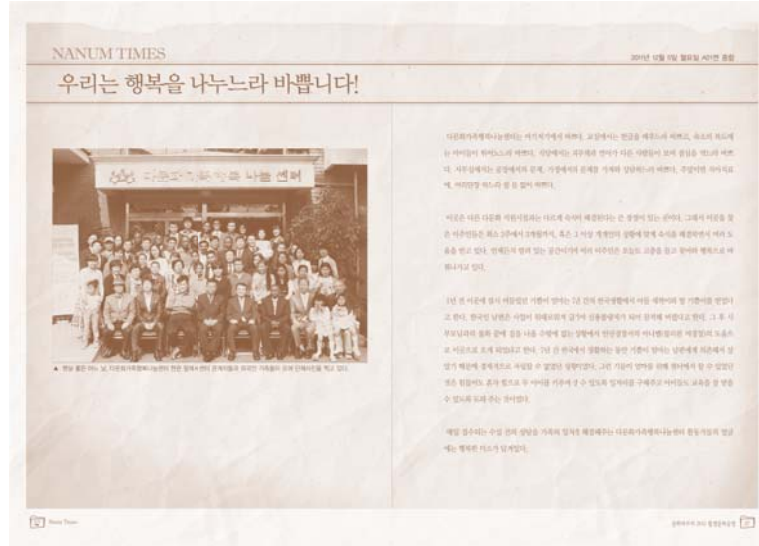
들꽃피는학교  
연극 수업 장면

4

별나무 공부방 선생님들  
인터뷰 장면

5

다문화공방  
최평수 선생님 인터뷰



- 6  
럭시미링  
작가 노슬기  
- 책 속에 들어가는 삽화
- 7  
프로그램 참여자 분들과  
함께 한 만찬 자리에서  
작업 과정을 발표하는  
정철규, 노슬기 작가
- 8  
프로그램 참여자 분들과  
함께 한 만찬 자리에서  
작업 과정을 발표하는  
이현희 작가
- 9  
나눔 타임즈



숲 지킴이들은 벌써부터 봄이 기다려진다. 봄이면 오솔길 곳곳에 피어날 꽃들과 지저귀는 새들의 향연, 봄의 향기로 피어날 작가들의 또 다른 작업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박이창식 - 문화살롱 공

**치유와 나눔의 숲, 어처구니 숲학교  
문화살롱 공 - 포천**

‘치유와 나눔의 숲 프로젝트’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 다른 존재의 관점과 시선으로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는 생태관을 배우고 실천하는 치유의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백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등 여러 의미에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어두기 위함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예술가들이 홍순각, 서광자 부부가 백혈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숲을 가꿔가는 그들의 삶에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포천시에 위치한 ‘어처구니 숲학교’에서 숲 지킴이로 이어가는 한 부모의 생태적 삶에 공감하는 지역 예술가들의 협력하여 숲 속에 휴식 공간을 만들었다. 예술가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공간에는 환자와 가족, 간병인을 위한 문화예술의 숲 치유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숲 속 오솔길 나들이 숲에서 너와 나를 만나다’는 이종균 설치작가가 숲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관찰하고 이해하면서 ‘치유와 나눔의 길’을 완성하였다. 그 위로 황보림 명상가의 안내를 따라 숲길 나들이가 진행되었다. 숲길에서 아코디언과 알토 색소폰 연주가 숲을 방문하러 온 사람들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숲 속 오솔길나들이 행사는 질병으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환자와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과 함께 교감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었다.

설치 작가 정기현은 직접 부화시킨 토종닭을 이주시키기 위해 닭들이 살아갈 아지트를 만들어 생명 나눔이라는 기본 취지에 어울리는 토종닭 이주 작업을 완성하였고 설치 작가 하정수는 친환경 생태 화장실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 조각가 나규환은 동물 시리즈로 난로 작업을 하고 이종균 작가는 수시로 숲 길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참여 작가들 모두가 작업 결과에 치중하지 않고 과정을 즐겼다.

이 프로젝트의 과정은 숲 속에서 펼쳐진 예술 작품이기도 하다. 사람과 사람이 공명하는 시간, 숲과 사람이 공명하는 과정이었고, 숲 학교와 예술가들이 공명하는 과정, 연대의 과정이었다.

치유와 나눔의 숲,  
어처구니 숲학교  
문화살롱 공 - 포천

기간  
2011. 9 - 2012. 1

참여 작가 및 도움주신 분들  
참여작가:  
나규환, 하정수,  
정기현, 이종균

치유 프로그램:  
마임 강지수, 명상 황보림

음악공연:  
소니아, 허진, 김연택

진행:  
문미희

참여하신 분들  
협력:  
홍순각 서광자 부부(어처구니  
숲학교), 홍재인, 홍승표,  
이인중

동네주민:  
이대영 오미화 부부,  
조태열, 이기중

후원:  
대림건설 중장비

1



1

단체 기념사진

2

숲 학교에서 내려다 본  
교동마을

3

하정수 작  
'친환경 화장실'

4

나규환 작  
'양순이'

2



3



4



5



6



7



8



9



5  
마임 강지수

6  
마임체험

7  
명상 황보림

8  
소니아와 허진의  
오솔길 공연

9  
이중균 작가의  
'치유와 나눔의 길'



### Who, 후 이야기 / 1

우리의 질문이 하나 더 있었다. 문화바우처사업의 시혜적 한계를 벗어나는 기획사업을 제대로 해볼 수는 없을까. 지역에서 문화운동을 하자고 모인 집단들인데, 문화바우처사업의 오래된 숙제들을 필연처럼 반복 재생산하지는 말자. 개인적으로 문화 나눔, 문화복지란 명목으로 이뤄지는 관람형 문화바우처사업들, 그러한 사업들의 근본적인 문제로 늘 지적되는 일회적인 문화소비현상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기회조차 드문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문화를 향유할 기회는 중요하다. 더 쉽게,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면 된다. 다만 문화지원이 대부분 그것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화소외계층을 대상화하여 여전히 문화소비자 혹은 문화수혜자로만 자리매김하게 하고, 상대적 박탈감과 문화소외를 재생산하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지원방식이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보완되어야 하고, 때문에 기획사업이 더욱 중요하고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 팀이 택한 방법은 간단하고 흔한 방법이었다. 그들을 작가로 모시자! 그들을 문화수혜자가 아니라 문화향유, 문화생산의 적극적인 주체자로 만들자. 물론 말은 쉬웠다. 하지만 '어떻게'를 고민해야 하는 순간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작가로 모시기 위해서는 작가로서 자연스럽게,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즐겁게 함께 작업할 그 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기획을 한 우리들조차도 방향의 올바른에서 출발은 했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믿음은 반신반의였다.

우렁각시매직케어에서 섭외한 참여 작가들은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수줍어하기도 했지만 곧 익숙한 재료와 잘 연마된 도구를 가지고 너무나도 훌륭하게 낙엽드로잉, 거품드로잉 등의 작업들을 소화했다.

일상노동을 일상예술로 발상 전환하는 작업을 함께 하며, 자신이 늘 하고 있는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자각을 넘어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랬다. 매일 하는 청소가 즐거운 예술작업이 될 수 있음을 함께 경험하고자 했다. 그리고 실제 작업은 기대 이상의 만족이었다. 늘 하던 빗자루 질이었고, 유리창 청소였지만 약간의 전환만으로도 그 고단한 일상의 노동이 재미있고 창의적인 작업이 되었다.

활생 문화공명  
김미경 - 아트포럼 리

### Who, 후 이야기 / 2

11월 14일 우리 수민이, 종현이가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정균재 사진 작가님의 환한 미소와 함께 아름다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진기를 잡는 것도 어설피 행여 비싼 카메라 망가질까 옆에서 조마조마 했지요.

작가님께서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마음껏 만져 보라 하시며 하나하나 자상히 설명을 해 주셨답니다. 마치 사진작가가 된 듯 멋지게 품도 잡고, 품만큼 멋진 사진도 찍었지요. 계속되는 사진작가님의 칭찬에 아이들이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원동(공원, 학교, 시장 등)을 종횡무진하며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가호호를 통해서 아이들이 너무 좋은 사진작가님을 만나서 3번을 만나는 동안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종현이, 수민이에게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신 경기문화재단, 정균재 사진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우리 아이들의 꿈이지만 이번의 경험을 통해서 더욱 멋지게 자라나길 기대해 봅니다. 사랑을 듬뿍 나누 문화교감 가가호호를 마치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가가호호 문화교감  
맑은샘 지역아동센터에서

### Who, 후 이야기 / 3

후기를 남기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제일 재미있었던 문화체험을 물어봤습니다. 의견이 분분했는데 아이들은 서울 숲 공연과 최근에 있었던 연극 '설해목'을 많이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모든 행사와 체험이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했지만 여운이 많이 남았던 연극 '설해목' 의 후기를 남깁니다.

가족의 역할과 소중함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반성을 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막연한 슬픔과 안쓰러움이 아이들의 눈에는 어찌 보였을지..... 공연 내내 걱정이 앞섰지만, 그 걱정을 무시하듯 공연을 관람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1학년 친구의 모습이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사실 저희 센터가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대학로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움직이는데 소요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날 공연이 많이 지연되었지요. 배우님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만큼 이었을지는..... 이해해 주시고 집중하여 무대에 서주셨던 모든 관계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닭 역할을 해주신 젊은 배우분의 안부를 물어옵니다. 아이들이 처음 보는 연극의 여운을 잘생긴 닭 아저씨로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이 내 것 백개 중에 하나 포기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임을 압니다. 항상 문화 공연에 끼워 달라며 귀찮게 하는 저에게 늘 웃음으로 답해 주시는 김성모 코디네이터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낮달 문화소풍  
광명큰사랑 지역아동센터에서

가가호호  
문화교감

낮달  
문화소풍

활생  
문화공명

**전시기획**

김월식 · 무늬만 커뮤니티

**전시참여작가**

곽동열, 박영균,  
이아람, 장성진,  
천원진

**코디네이터**

장혜윤

**디자인**

busy busy

**글 편집**

장혜윤, 이기언

**주관**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도

**후원**

복권위원회

**협력기관**

스톤앤워터 &  
소셜아트컴퍼니,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대안공간 눈 & 이웃(EWUT),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아트포럼 리,  
문화살롱 공,  
에이블 아트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T 031-231-7238-9  
F 031-236-0283

**SNS**

[www.twitter.com/@GGaceA](http://www.twitter.com/@GGaceA)  
[www.facebook.com/ggacef](http://www.facebook.com/ggacef)

**홈페이지**

경기문화재단:  
[www.ggcf.or.kr/](http://www.ggcf.or.kr/)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www.ggace.or.kr/](http://www.ggace.or.kr/)

**카페**

낮달 문화소풍:  
[cafe.naver.com/culturepicnic](http://cafe.naver.com/culturepicnic)

가가호호 문화교감:  
[cafe.naver.com/gagahohocc](http://cafe.naver.com/gagahohocc)